



전주 MBC가 주최·주관하는 '2019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이 오는 8월 2일부터 사흘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진다.

'한여름 밤을 수놓는 젊음의 반란'

전주종합경기장서 8월 2일 '얼티밋뮤직페스티벌' 개최

전주 MBC가 주최·주관하는 '2019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이 오는 8월 2일부터 사흘간 전북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진다. 9일 전주 MBC에 따르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JUMF는 인디부터 록,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며 국내 뮤지션들이 공연하는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마미무를 비롯해 최근 대세로 떠오른 밴드 잔나비, 힙합 아이돌 기리보이, 스윙스, 키드밀리 등이 최종 라인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첫날 무대는 마미무, 랩퍼 이센스, 스윙스·키드밀리·기리보이, 서사무엘, 베네수엘라 출신의 하드코어 DJ 자도나, 2019 한국대중

음악상 합합부분 대상 제이레페르가 메인무대에 오른다. 또 전주 도상에 별도로 마련된 어반 스테이지에는 결성 30년을 맞은 '블랙홀'을 비롯해 알마나, 매씨드, 뎀닉이 출연한다. 다음 날인 3일에는 세계적인 크리소찬 헤비메탈 밴드 '스트라이퍼'와 독일그룹 레이저 출신 기타리스트 빅토르스볼스기가 이끄는 멜로딕 메탈밴드 '알바냐', 일본의 스크리밍아이돌 '브로큰바이더스크립'이 참여한다. 이어 국내 대표밴드 YB(윤도현 밴드), 피아, 로맨틱펀치, 신포플, 해머링, 소닉스톤즈, 헤리빅버튼, 노이지, symrck 등 헤비메탈과 하드록의

정상의 밴드들이 열정을 태운다. 마지막 날인 4일은 밴드 벨, 10cm, 잔나비와 소란, 안영바다, 네미시스를 비롯해 일본의 메탈 아이돌 패스코드, 모던록밴드 브랏츠, 국내에서는 조지, 마틴스미스, 피싱걸즈가 젊음의 열기를 뜨겁게 발산할 예정이다. 이태동 전주 MBC 책임 PD는 "JUMF는 음악을 사랑하는 수도권 거주자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며 "비용을 적게 책정한 것도 진정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축제와 관련해 티켓 3일권은 11만원이며,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3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반딧불이 그림 보러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로!

최북미술관서 '반딧불이-Ⅱ' 개최
9월 8일까지 문재성 작가 작품 전시

무주군 무주를 최북미술관에서는 오는 9월 8일까지 기획전 '반딧불이-Ⅱ'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반딧불이 작가로 통하는 문재성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딧불이로 명명된 작품 25점은 모두 수묵채색, 한지아크릴 기법으로 제작됐으며 그림 속에는 계절이 있는 산과 들, 나무와 꽃 등의 자

연을 배경으로 펼쳐진 반딧불이의 군무가 담겨져 있다. 무주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에서는 "반딧불이의 고장 무주라 더욱 특별한 전시회"라며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과 하나 돼 시골길을 거닐고 있다는 느낌, 반딧불이 울린 듯한 착각에 빠질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성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공모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실력과 화가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비롯한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대전 추천작가展 등에 참여했으며 무주를 비롯한 서울, 제주, 미국 등지에서 36차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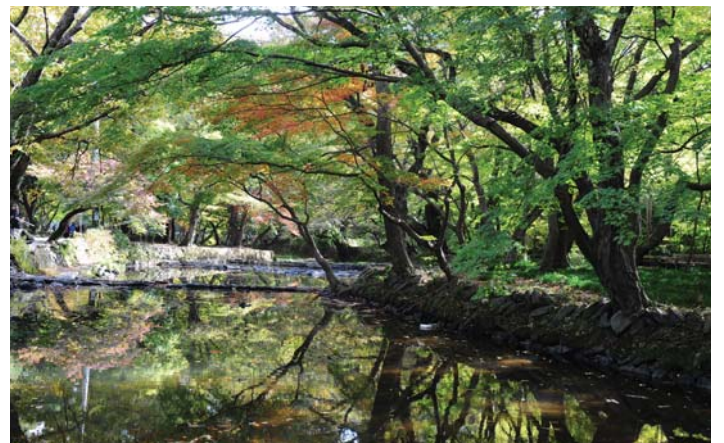


걸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제1종 공립미술관인 무주최북미술관 이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 가능)까지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월요일 휴관). (문의 063-320-5636)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 실천 결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이운애)는 9일 '인권경영 현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임직원 대표가 현장을 선포 및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낭독에 따라 센터장을 포함한 전 직원은 현장 선언문을 다 함께 숙지하고 인권 경영을 적극 실천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인권경영 현장은 인권 존중에 대한 유엔(UN)현장 등 국내외 규범 지지 및 준수, 인권 침해 발생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인종·종교·장애 등에 따른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등 10대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운애 센터장은 "‘인권경영’이란 사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다"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전 직원이 인간 존엄성을 마음속에 다지고, 직장생활 및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선포식에 앞서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인권교육 실시, 6월 내부규칙 마련과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을 추진했으며, 향후 인권 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등 적극적인 인권경영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고창 질마재길 4코스가 이달의 걷기 좋은 여행길로 선정됐다.

"짙은 녹음 속 고즈넉한 산사 함께 걸어요"

한국관광공사 추천 7월의 걷기 여행길 고창선운산 질마재길 4코스 선정

고창 질마재길 4코스가 이달의 걷기 좋은 여행길로 선정됐다. 짙은 녹음 속 고즈넉한 산사를 거닐며 휴식을 취하고, 북분자와 종전장어, 9년 구운소금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웰니스(Wellness) 관광의 최적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7월의 걷기 좋은 여행길로 전국의 아름다운 국·도립공원 5곳을 선정했다. 이 중 고창에선 '고인돌 질마재 따라 100리길 4코스(19.8km)'가 포함됐다. 한국관광공사는 "밤을 뿜뿜 흘리며 등산을 하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산이 주는 상쾌함으로 무더위를 날려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고창의 고인돌 질마재 따라 100리길 4코스는 풍천에서 도솔암을 거쳐 검단소금전사관, 좌치나루터까지 총 19.8km로 4시간30분 코스다. 짙은 녹음으로 우거진 이듬드

리나무와 돌담, 흙길의 어우러지고, 시원한 서해바다 풍경을 볼 수 있다. 코스의 다른 이름은 '보은(소금)길'이다. 이 길은 선운사를 창건한 점단선사가 도적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자, 도적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 매년 이 길을 걸어서 소금 두 가마를 선운사 부처님께 공양했다는 1500년 보은의 역사를 담고 있다. 소금을 구웠던 벌마과 소금샘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소금 전시관이 있어 옛 소금 만드는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소리재 능선을 따라 참장고개를 넘어가면 판소리 최초의 여성 창(唱) 진채선 생가터를 만날 수도 있다. 고창군청 홍보팀 고미숙 팀장은 "신화와 이야기, 선조들의 생활상과 삶의 지혜,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한 고창의 길을 걸으며 소중한 추억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지역 이자리센터

2 무주군 로컬 JOB센터

063) 322-9297(구인구직)

2019년 문해교육 강사양성 교육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19. 6. 20.(목) ~ 7. 3.(수)

접수처: 무주군 로컬 JOB센터